

1.

| | | | |
|---|--|--|-----------------|
| | | | * |
| 가 | | | |
| | | | 2014.09~2015.08 |

2.

| | | | |
|--------|--|--|--|
| | () | | |
| | , 20 가 . , 가 가 . (40 .) 가 . , , . | | |
| 2014-2 | (JSL) 3 , , OGU 가 . 1)JSL & (E class /) : , , 가 가 . E 가 E 가 1 | | |

없었고, 대부분 중국, 대만, 한국 학생들로 구성된 클래스입니다. 수업 내용도 JLPT 1급의 문법과 경어, 그리고 작문 수업을 받게 되는데, 작문 수업은 대부분 마스다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프린트로 공부하게 됩니다. 문법과 경어는 각자 교과서가 있어서 구매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경어 공부가 정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 일본 취업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어를 정식으로 배우고 싶었는데, 마스다 선생님이 알기 쉽게 가르쳐주셨고 교과서도 꽤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일본 소설을 좋아해서 가끔씩 구매해서 읽는데 수업시간 때 배운 문법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또한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문은 솔직히 큰 인상이 없네요. 한 가지 인상이 깊었던 것은, 일본의 공식적인 편지를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②한자 : 한자 수업은 E 클래스의 수준과 C 클래스의 수준이 꽤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E 클래스는 중국과 대만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수준이 꽤 높아요. 2014-2학기때는 그래도 한국 학생이 2명이었는데, 2015-1학기 때는 한국인은 저 혼자 뿐이라 혼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한자를 알고 있고, 한자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무리해서 E 클래스로 들어가서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자가 아직 자신 없고, 알고 있는 한자를 복습하고 완벽하게 쓰고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C클래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サービス産業論 (매칭과목/관광경영학과 : 서비스론)

서비스산업론은 정말 소규모의 학생들로 진행된 수업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학생들은 꽤 있었지만 결국에 출석하는 학생들은 5-6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수님이랑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꽤 많았고, 교수님께서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お茶會도 2번인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같이 수업듣는 일본인 학생들과도 재미있게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수업 내용은 마냥 쉽지는 않았지만, 교수님도 정말 좋았고, 발표를 한 사람에게 한해서 기말고사가 면제되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발표 하면 성적도 A이상 준다고 하셔서 냉큼 했습니다.)

3) トラベルビジネスケーススタディ -

(매칭과목/관광경영학과 : 여행상품기획론)

수업 내용은 어렵지 않았지만 교수님이 정말 악필이셔서(같이 들은 일본인 친구도 인정한...) 필기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수업은 레포트와 기말고사로 성적을 내는데, 레포트는 그 시기에 무료로 개방하는 박물관이나 관광스팟을 다녀온 뒤 감상문을 제출하는

| | |
|------------------------|--|
| | <p>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철렁하는데, 매 주 수업마다 관광 테마를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기말고사는 여태까지 공부한 관광 테마 중에 자신이 원하는 거 3개를 골라서 요약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거라고 말씀해주셔서 딱 3개만 골라서 요약정리 하고 그걸 달달 외웠더니, 막상 기말고사 시험지를 받아보니 테마는 교수님께서 임의로 10개를 지정해놓으셨고... 거기 안에서 골라야만 했고.. 그리고 단순 요약이 아닌 지정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망했다 라는 심정으로 그냥 제가 공부했던 것을 줄줄 쓰고 3가지 요약정리 했던 것이 아까워서 지문에는 없었지만 그냥 썼더니 그래도 좋은 성적을 주셨습니다.. 나를 유학생 편의를 봐주신 것 같아요.</p> <p>4)ホテル料飲オペレーション (매칭과목/관광경영학과 : 외식경영론)</p> <p>2014-2학기 때 들었던 세 가지 과목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수업이지만, 마지막가서는 여유있게 끝낼 수 있었던 그런 수업입니다. 매 주 수업마다 출석체크용도의 수업 감상문을 제출해야하며, 잡담 절대 금지, 핸드폰도 만지면 안되고, 모자도 벗어야하는.. 꽤 깐깐한 교수님이셨지만, 그래도 한국인이라고 많이 신경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기말고사.. 오픈북이었습니다. 문제도 정말 간단해서 금방 풀었어요. 아마 제가 첫 번째로 답안지 제출하고 나갔을 겁니다. 단 한번도 수업을 일찍 끝내주신 적 없고 항상 정시에 끝내주셨는데 그래도 일본의 연회 서비스 등을 배울 수 있던 좋은 수업이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i>관광경영학과의 학생이라면 제가 수강했던 과목들 전부 추천하고 싶습니다.</i></p> |
| <p>2015-1학기 수업</p> | <p>1) JSL 수업(E class/마스다 선생님)</p> <p>2014-2학기 수업과 동일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p> <p>2)レストランビジネスマネジメント (매칭과목/관광경영학과 프랜차이즈경영론)</p> <p>이 과목은 호스피탈리티 학과 학생들이 대부분인 수업이었습니다. 학교 교수님이 아닌 강사님이 오셔서 수업을 진행해주셨고,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었어요. 레포트와 기말시험으로 성적을 내게 되는데, 기말시험은 시험 전에 문제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공부만 한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 비즈니스 매니저먼트지만, 호텔에 관해서도 꽤 많이 배웁니다.</p> |

| | |
|--------------------|--|
| | <p>3) マーケティング戦略論 (매칭과목/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전략론)</p> <p>이 수업을 맡으신 교수님의 수업들은 전부 아주 이해하기도 쉽고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 간단한 일본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 내용도 전부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교수님 자체도 워낙 좋으신 분이래 유학생이라고 잘 모를까봐 중간중간 와주셔서 이해했냐고 물어봐주셨어요. 저번 학기 때는 국제마케팅이라는 수업을 진행해주셨는데, 친구가 그 수업을 들어서 청강을 몇 번 했었어요. 두 수업 모두 경영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수업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p> <p>4) 表現A (매칭과목/GBS수업 비즈니스 일본어6)</p> <p>이 수업은... 정말 아주 어렵습니다.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래면 쉬운 수업이 되겠지만, 솔직히 일본 학생들도 잘 모르는 한자어를 공부해요. 족지 시험을 봤을 때 50점 만점에 평균이 30점 정도였다면 어느정돈지 예상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OGU 학생들의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1학년 학생들이 많고, 수업 분위기는 굉장히 조용해요. 하지만 선생님에 따라서 출석만 하면 A이상 준다는 분도 계셨고,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기말시험이 80% 족지시험이 20%로 성적을 책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일본어 한자수업의 연장선인 느낌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면 한자 공부를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다시 듣겠냐고 물어본다면 듣지 않고 싶네요..</p> |
| <p>프로그램 운영</p> | <p>1. 교류회</p> <p>학기 초반에는 일본 학생들(소위 Buddy)과의 교류회도 굉장히 많았고, 이것저것 행사들도 많았는데, 2학기가 되면서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자체도 교류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참여는 했는데, 썩 성과는 못 얻은 것 같네요. 하지만 한국에 관심 많은 학생들도 많고, 초반에 일본 친구 사귀기엔 교류회 만큼 좋은게 없는 것 같아요.</p> <p>2. Buddy 프로그램</p> <p>Buddy 프로그램이란 일본 학생들이 유학생 친구들을 서포트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출국 전에 OGU에서 유학생 당 1명의 Buddy를 붙여줘요. 출국 전에는 몇 가지 도움을 받았는데, 막상 이 곳에 와서 만났는데 그렇게 친해지지는 못했네요. 하지만 주위 친구들 보면 자기 Buddy랑 엄청 친해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놀고 그런 애들도 있고, 저처럼 만나면 인사만 하는 정도인 친구도 있고, 아예 서로 모르는 척 지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좋은 Buddy를 만나면 확실히 유학생화에 여러</p> |

| | |
|--|--|
| |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이것도 자원봉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점점 소홀해지는 Buddy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p>일본의 9월은 여전히 여름입니다.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고, 긴팔은 꿈도 못 꿉니다. 엄청 땀을 흘리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강 근처라 그런지 모기도 너무 많아서 꽤 많이 물렸어가지고 모기약이나 퇴치약 갖고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p> <p>겨울은 그럭저럭 따뜻한 편에 속하지만, 일본 집 구조 상(목재건물) 바닥 난방이 없어서 정말 냉한 기운이 집안에 감돕니다. 전기장판은 필수이고, 전기세 많이 나와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온풍기 틀고 지내시면 될거 같습니다. 저는 가스비를 되도록 아끼고 싶었기 때문에 온풍기 한번도 안틀고 전기장판으로만 겨울을 지냈어요... 정말 너무 너무 추웠지만 그래도 죽진 않았으니 다행이네요.</p> <p>한국과 비슷하지만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덜 추운 그러한 날씨입니다.</p> |
| 안전 | <p>저는 학교에서 연계해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파트들은 아이카와라는 역 근처에 있습니다. 아이카와는 치안이 좋은 편도 아니고 가게들도 조금 허름한 곳이 많지만 그래도 못 살 정도는 아닙니다. 일본도 꽤 치안이 높은 편이라 밤까지 아르바이트하고 귀가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p> |
| 숙소 |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p> <p>OGU의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숙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외부숙소를 마련해줘서 초기비용없이 월 4만 2천엔으로 모든 시설이 구비된 곳에 살 수 있지만, 이 것에 대해 저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p> <p>집 문제 때문에 국제 센터 사람들이랑 트러블도 많았는데요, 정말 솔직하게 제 생각을 전부 적으려고 합니다. 길지만 꼭 읽어주세요.</p> <p>일단 남자는 기본적으로 임페리얼이라는 곳에 살게 되고, 여자들은 아리야마상(집주인 이름)의 아파트에 살게 됩니다. 한 학기 프로그램으로 오는 학생들의 몇 명은 미나미이바라키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가게 되는데 이 곳에 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방도 넓고 굉장히 깨끗하고 보안도 좋습니다TT... 다만 처음에 이불 1만엔 값을 지불해야하고 야침이</p> |

4만 5천엔으로 다른 곳보다 3천엔 정도 높지만, 저는 만약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이 곳으로 가겠습니다.

임페리얼은 제가 직접 살지는 않았지만, 몇 번 놀러가 본 결과, 전철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고(집안이 울릴정도), 아파트 자체가 깨끗한 편은 아니라 바퀴벌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침대 같은경우도 매트리스가 변변치 않아 굉장히 딱딱해 아마 매트리스를 구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리아마상의 아파트는 티아라, 티파니,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었는데 이름을 까먹었네요.. 아무튼 세 곳의 한 곳으로 배정받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티아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 선배가 티아라에 살았는데 그 때는 남자학생들이 절반이 넘었고 여자학생들도 같이 살았던 남녀혼용 숙소였지만, 저 때는 여자 학생들밖에 안살아서 여자전용이었습니다. 이 곳은 3층의 한 방을 제외하고 굉장히 평수가 좁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구성되있는 구성품들도 다 다릅니다. 관리도 제대로 안해줘서 건물에 먼지가 많은 편이었고, 그리고 바퀴벌레는 아주 자주 출몰했습니다. 제 방에 한번, 친구 방에 한번... 바퀴벌레가 안 나타난 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주 출몰했네요. 8월 말에 도착해서 아파트에 산 지 이틀만에 바퀴벌레가 나와서 이 것에 대해 항의를 했더니, 국제 센터는 일본은 바퀴벌레가 원래 많다. 라는 답변으로 시종일관했고, 전혀 신경 안쓴다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일본인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우리집은 안나와. 라는 답변이 많았고 결국엔 이 건물이 더럽다는 얘기로 밖에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건물 소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일본엔 그런 소독이 없다라고 하더니 나중 가서는 소독을 해주고...(소독이라기보다는 방안에 케무리로 쫓아내는 거) 바퀴벌레 약 하나 주고 끝이더라구요. 그래도 바퀴벌레 나왔으니 잡아달라 라고 요구하면 와서 잡아줍니다.

아리아마상의 집에 살게 되면 매트리스나 이불은 기본으로 제공되지만, 이 매트리스... 정말 저는 매트리스 가져가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어디선가 올라오는 찌린내 비슷한 원인이 바로 매트리스였고, 매트리스에 이상한 털...이 덕지덕지 붙어있었고.. 제대로 관리도 안한 매트리스를 왜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오븐 전자레인지도 있었는데 안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오븐 같은 경우는 정말 때를 지울 수 도 없을 정도로 더럽혀져 있어서 사용 안했습니다. 행거도 변변치 않아 조금만 옷을 많이 걸어서 금방 풀썩 주저앉았고, 에어컨 필터도 청소 되어있지 않아 이상한 냄새가 났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넓었던 티아라의 3층에는 망가진 청소기가 놓여져있습니다.. 작동도 안되는 청소기를 왜 놔둔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이카와 부동산업자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살다

| | |
|----|---|
| | <p>살다 안되겠어서 친구랑 같이 나가서 살 집을 구하고자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집을 소개 받았고, 부동산업자 분들과도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아리야마상의 집에 살고 있다고 하니 엄청 얼굴을 찌푸리시면서 有山さんはだめ。라고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이카와에 여자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 학교의 여학생들도 몇 명 아리야마상 집에서 살았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서 결국엔 이 대학교 자체에서 아리야마상의 집을 거부했고, 그래서 부동산업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안 좋기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리야마상과 OGU가 계약을 해서 유학생들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OGU는 왜 이런 평판이 안 좋은 아리야마상과 계약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유학생들에게 수준이 떨어지는 집을 제공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초기비용이 없고 웬만한 가구들이 전부 갖춰져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고, 또 티아라가 아닌 티파나나 다른 아파트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다만 다음 또 우리 학교 후배님들이 티아라로 배정을 받게 될 것 같아 벌써 마음이 안 좋습니다..TT 웬만하면 그냥 홈스테이를 신청하세요!! 그게 월 스트레스 안 받고 좋습니다!!</p> <p>마지막으로 하우징 정보는 8월이나 되야 메일 보내줍니다.. 그러니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편이 좋습니다.</p> |
| 식사 |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O)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O) 기타 ()</p> <p>식사에 관해서는 제가 딱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 듯 합니다. 저는 귀찮아서 제가 요리를 안 하고 밖에서 사먹은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학교 식당 같은 경우는 정식은 유학생 100엔 할인 가능했고, 정식이 아닌 메뉴는 할인이 안됩니다. 히가와리 메뉴는 250엔이면 해결 가능하고 밥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p> <p>가끔 정말 가끔 요리를 했는데 아이카와 역 근처에 100엔 로손이 있어서 보통 거기서 식재료를 사거나 조금 걸으면 스이타에 業務スーパー가 있어서 이곳에서 식재료를 샀습니다.</p> |
| 교통 | <p>아이카와에서 쇼자쿠까지 정기권을 끊으면 월 1700엔 정도고, 3개월이나 6개월짜리 끊으면 월 1500엔 정도로 할인이 됩니다. 저는 오전수업이 있을 때는 정기권을 사용했는데, 오전 수업이 끝나고 학부수업만 남았을 때는 주 2일이라 걸어서 다니거나 회수권(10개 가격으로 11개 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통학했습니다. 아이카와에서 쇼자쿠까지 걸어서 30-40분 정도 걸립니다. 의외로 걸을 만 합니다.</p> |

| | |
|--|--|
| |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 항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 | 약 300,000원 | 편도(입국/귀국 2장을 합친 가격) |
| Fees | X | |
| 보험료 | 1) 국민 건강보험(무조건 들어야해요) : 월 2,000~2,200엔 정도. 2) 아파트 화재보험 : 500엔 이내 3) 학교 보험 : 2학기 8,000엔 | 학교 보험 같은 경우는 귀국을 하게 되면 소멸되기 때문에 방학 중에 귀국을 할 예정이 있는 분이나 학기 중에 귀국을 할 예정인 분은 그냥 개월 별로 드시는게 좋아요. 솔직히 아예 안들어도 상관은없다고 생각하는데 강제적인 부분이라 어쩔 수 없네요. |
| 숙소 | 월 42,000엔 | |
| 식비 | 월 30,000엔 | |
| 교통비 | 월 1,700엔 | |
| 책값 | 1학기 : 5,000엔 이내 | ※ 제가 들었던 학부수업들은 교과서가 없었어요. ※ 2학기 때 클래스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책을 딱히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요. 변동이 있을 시에는 선생님들이 융통성 있게 복사해서 나눠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
| 기타1 | 문화생활 : 20,000엔 이상 여행 : 30,000엔 이상 | ※ 놀러다니는 비용을 어떻게 적어야할지 몰라 문화생활이라 일단 적었어요. ※ 핫카이도나 오키나와같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30,000엔 이상으로 들 수 |

| | | |
|-----|--|--|
| | | 밖에 없더라구요. |
| 기타2 | 수도세(야청에 포함) 전기세 : 월 1,000엔~2,000엔 가스비 : 월 1,000엔 이내 휴대폰비 : 월 2,000~2,500엔 | 전기세 + 가스비 총 : 2,000엔~3,000엔 휴대폰(비모바일 사용) |
| 합계 | 월 80,000엔 | 최저로 잡은 순수 생활비 |

5. 출국 전 준비사항

1. 학점계산

저처럼 4학년 때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지만, 출국 전에 미리 졸업사정을 받아보시고 학점 계산을 하신 후에 체계적으로 이 곳에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을학기 때, 아무 생각 없이 학점을 분배한 탓에 졸업을 하는데 지장이 갈 뻔 했거든요. 지금도 졸업사정을 제 스스로 계산한터라 오차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다른 분들은 출국 전에 미리 조교실로 가서 조교님과 상담해보고 자신에게 알맞은 수업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일본 생활에 대한 정보

다들 미리 준비해오실 것 같지만, 일본으로 와서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건지, 집 문제는 어떻게 할건지,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입국장에서 미리 허가를 받는다면지 등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미리 습득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와서 찾으려고 해도 일본 인터넷이 한국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장 필요한데 없어서 찢찢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본식 도장 같은 것도 미리 만들어서 오셔야지 싸게 만들어서 오실 수 있어요. 일본은 통장을 만들 때나 집을 계약할 때 등 도장 생활 전반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장이 없으면 불편이 생기실 지도 모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약 1년간의 유학이었는데, 저는 이 유학생활을 통해 얻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를 여행한 적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이렇게 장기로 살아본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마냥 평탄한 유학생활을 보냈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유학오기 전 일본어 회화실력만큼은 늘리고 가자. 라는 다짐을 이룰 수 있었고, 주위에서도 초반보다 지금이 훨씬 일본어를 잘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취직에 대해서도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조금 더 틀이 명확하게 잡힌 것 같아 귀국하면 일본 취업 설명회나 박람회를 찾아 다녀볼 생각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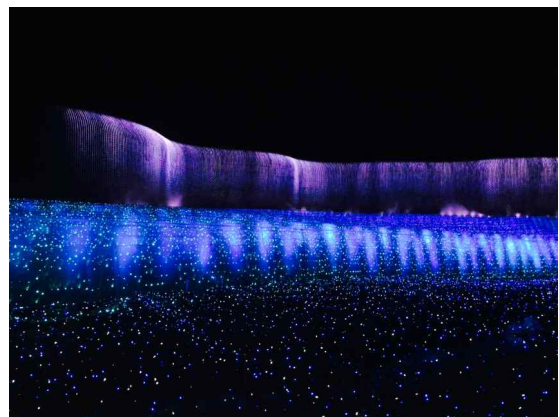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JASSO 장학금을 약 10개월동안 받으면서 다녔기 때문에 생활이 더 풍요로웠어요.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초반에 가지고

왔던 돈에 비해 현저히 적은 액수를 들고 왔던 저라, 만약 그 장학금이 없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여행은 꿈도 못 꿔고요. 하지만 장학금 덕분에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가고 싶었던 국내여행도 몇 번이나 할 수 있었고, 먹고 싶은 것도 다 사 먹을 수 있었고 아주 편안한 유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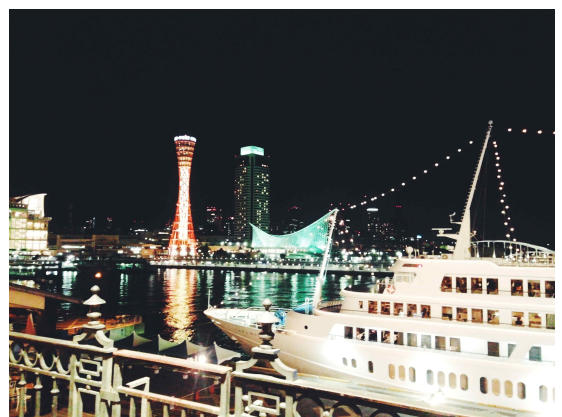
OGU라는 학교가 유학을 하기에 엄청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학교인 것 같아요. 물론 학교 레벨을 생각했을 때 그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기대는 금물이지만, 그래도 유학생들을 어느 정도 꽤 지원을 해줍니다. 서양 쪽 친구들도 많이 오는 학교라, 주위에 보면 일본어 실력도, 영어 실력도 한꺼번에 늘려서 가는 친구들도 보이더라고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할뿐더러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은 1도 못늘리고 가지만 그래도 일본어 회화 실력이 늘어났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도 길지도 않은데, 솔직히 어학공부만 하고 가자! 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교환학생을 하는 동안 스스로 몇 가지의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달성해나가는 것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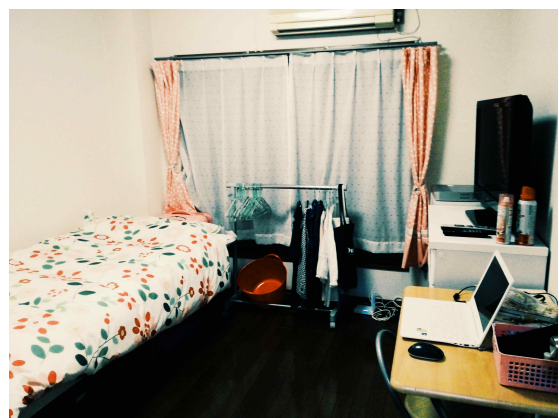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나바나(미에현)



고베 야경



| | |
|---|---|
| 방 사진 | 제일 좋아하는 우유랑 근처 빵집 빵 |
|  |  |
| 집 근처 | 나고야성 |